

교회개혁 방향과 실천 교회사례 세미나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무엇이 **대안**입니까?

강사 : **이만열** 장로 (前 국사편찬 위원장)

이의용 장로 (교회문화연구소 소장)

교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민.. 만 하기보다는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개.. 합니다. 교회개혁의 노력을

그리고.. 함께 대안을 찾아보시겠습니까?

2008년 2월 24일 (주일) 오후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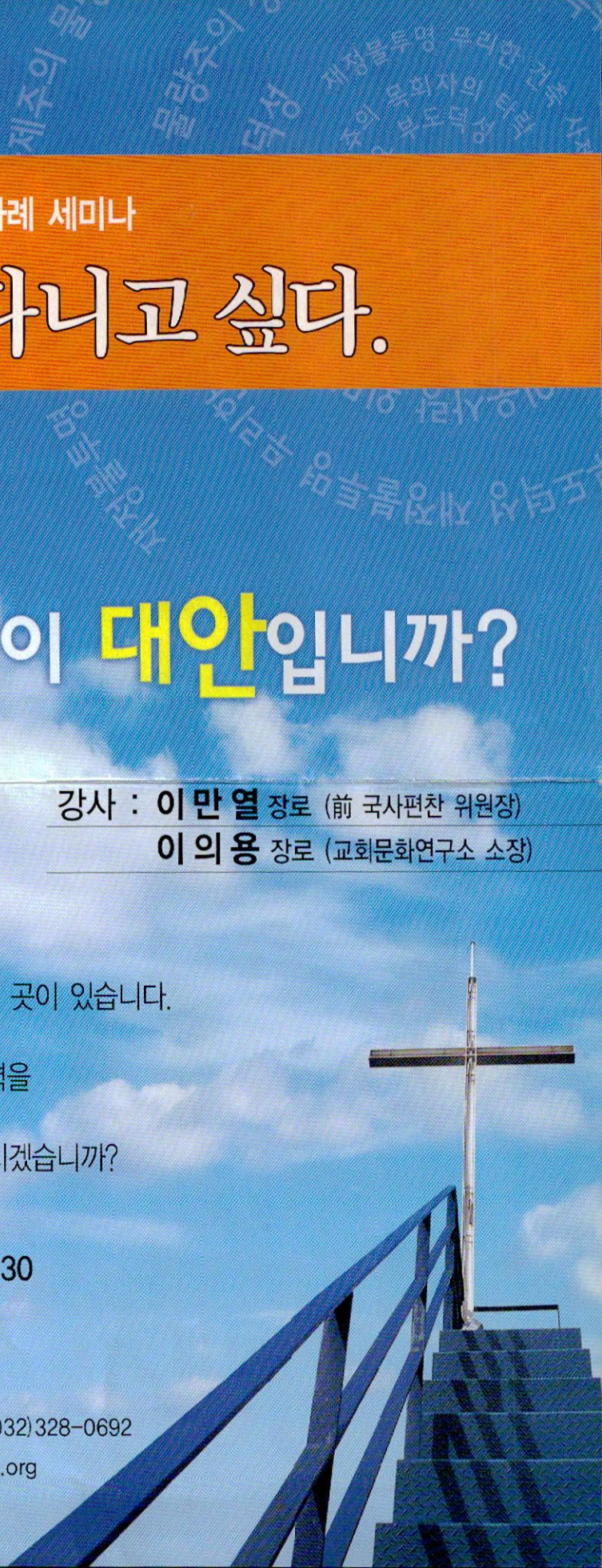
복사골문화센터 5층 (부천상동)

주최 : 개혁교회네트워크

주관 : **예인교회** www.yein.org T. 032)328-0692

후원 : 교회개혁실천연대 www.protest2002.org

뉴스앤조이 www.newsjoy.co.kr



* 오늘의 한국교회는 두 가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교회는 자생의 전망마저 암울할 정도로 물량주의적, 기복적, 이원론적 신앙에 깊이 빠져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개혁을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이 일상적으로 훼손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한국교회의 현 상황이 면죄부로 구원의 은혜를 모독하던 중세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새삼 확인한다. 교계정치가 금권에 의해 좌우되고, 무허가 신학교들이 무자격의 목회자를 양산하며, 대표적 신학교들이 신학적 독단과 편견에 의해 장악되고, 기성교회들이 비성경적, 비복음적 관행과 타성에 젖어 온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우리들이 독단적 사제주의를 신성화하는 목회자의 설교에 귀먹고, 화려한 교회장식과 장엄한 의식에 눈먼 사이, 교회의 재정은 온갖 명목의 현금과 금융 차입의 세속적 사술(邪術)로 변하고, 교회의 교제는 유유상종의 친목회로 전락해 갔으며, 교회의 구제는 연민과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관례적 체면 세우기로 빠져들었다.

세속의 권력과 재력 그리고 학연과 지연 같은 온갖 인연의 끈들이 교회의 위계구조에 그대로 반영되는 상황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양식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수많은 평신도들은 교단과 교회정치의 횡포 앞에 무력하게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우리는 복음의 선포가 마땅히 복음의 실천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된 부패와 불의는 한국 크리스천들의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한국사회의 어둠과 부패를 지레 선도(先導)하는 범죄자들을 일상적으로 배출해 오면서, 세속의 기준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참담한 윤리부재의 상황을 재생산해 왔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개선교가 등록된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신도를 확보하고, 사회지도층 인사의 절대다수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에 접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사실을 자랑 아닌 낯뜨거운 현실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민망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교회는 무감각하고, 무비판적이며, 무기력한 "교회인"을 양산하는데는 성공했지만, 구체적 일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투철한 "신앙인"을 길러내는 일에는 명백히 실패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창립선언문 중에서

이 만 열 장로

서울중앙교회

약력

前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한국사학사학회 회장, 국사편찬위원장

現 (사)국제민간교류협회 이사장,
(사)여명 이사장



이 의 용 장로

일산충신교회

약력

前 쌍용그룹 홍보팀장,
KT문화재단 본부장

現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겸임교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교회문화연구소 소장



예인
교회
관련
글

세상에는
이런
교회도
있다

page 64 >>>

